양고기일일시장뉴스 (2026.10.27)

(주)로드프리미엄 | 대상: 호주 / 뉴질랜드

오늘의 핵심

1. 10/23 주간 호주 중량 양 지표는 1,128¢/kg(+0.8%, 한 달 +3.5%)으로 올랐고, 재입식 양 지표는 1,189¢(-0.5%)로 소폭 내렸습니다. 양 출하는 194,802두로 보합, 성양은 80,548두(+8.6%)였습니다. (MLA 주간 시황)
2. 가공업체 구매 그리드(43주차)는 탐워스 양 A$10.30~11.00/kg, 스타웰 신규 시즌 양 10.70~11.00달러, 머튼 8.00~8.50달러(HSCW) 수준입니다. (Agora Marketplace)
3. 미국 ITC 공청회에서 미국 양 업계는 최대 6~8년의 수입 제한(세이프가드)을 요구하며 현재 21%인 자국산 점유율을 4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뉴질랜드는 피해를 부인했고, 피해 판정은 11/13까지 나옵니다.
4. 뉴질랜드 양 스케줄(17.5kg YX)은 10/12 기준 북섬 NZ$209, 남섬 NZ$206으로 보합이며, 1년 전보다 17% 높습니다.
5. Agora에 따르면 10/26 양 시장은 매수 경쟁이 살아나고 마무리가 잘된 중량 양 수요가 많아 NSW·빅토리아에서 대체로 보합~강세였습니다. 중국 양고기 도매가는 10/26 67.06위안/kg(-1.0%)입니다. (Agora, 농업농촌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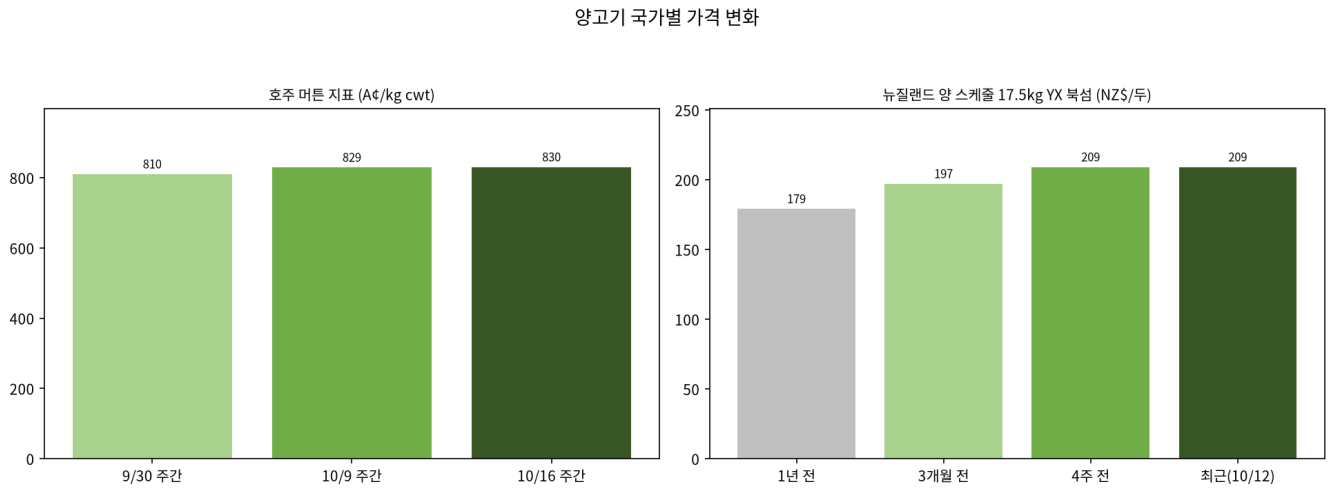
국가별 오퍼가격 참고 지표

실제 한국향 오퍼가격은 비공개이므로, 아래는 산지 경매가, 가공업체 스케줄, 가격지수 등 공개 참고 지표입니다.

국가	지표	최근 가격	변동	출처
호주	무역용 양 지표 NTLI (10/9 주간)	1,153 A¢/kg cwt	전주 +5%	MLA 주간 시황
호주	머튼 지표 (10/16 주간)	830 A¢/kg cwt	강보합 (전주 829)	MLA 주간 시황
호주	중량 양 지표 (10/23 주간)	1,128 A¢/kg cwt	전주 +0.8%, 한 달 +3.5%	MLA 주간 시황
호주	재입식 양 지표 (10/23 주간)	1,189 A¢/kg cwt	전주 -0.5%	MLA 주간 시황
호주	포브스 무역용 / 중량 양 평균 (10/20)	1,097~1,222 / 1,068~1,199 A¢/kg cwt	양 출하 24,800두 (-6,350)	Agora(포브스)
호주	포브스 머튼(메리노 암양 18~24kg) (10/20)	913 A¢/kg cwt	강세	Agora(포브스)
호주	벤디고 도축용 양 주요 등급 (10/19)	1,120~1,180 A¢/kg cwt	강보합, 양 19,624두 (+774)	Agora(벤디고)
호주	전국 양 / 성양 출하 (10/23 주간)	194,802 / 80,548두	보합 / +8.6%	MLA 주간 시황
호주	가공업체 양 구매 그리드 43주차 (탐워스 / 스타웰 신규 시즌)	A$10.30~11.00 / 10.70~11.00/kg HSCW	10/21 고시	Agora Marketplace
호주	가공업체 머튼 구매 그리드 43주차 (탐워스 / 로베탈 중량)	A$8.50 / 8.00/kg HSCW	10/22 고시	Agora Marketplace
호주	NTLI (9/30 주간, ABARES)	1,088 A¢/kg cwt	전년 -8%	ABARES
호주	발라랏 양 평균 (10/9 주간)	1,226 A¢/kg cwt	-	MLA 주간 시황

국가	지표	최근 가격	변동	출처
호주	AuctionsPlus 재입식 양 지표 ARLI (10/7 주간)	1,329 A¢/kg cwt	-10¢	AuctionsPlus
뉴질랜드	양 도체가 상단 (10월 셋째 주)	최고 NZ$12.20/kg CW	소 도체가 약 NZ$10/kg	NZ Herald
뉴질랜드	양 스케줄 17.5kg YX 북섬 (10/12)	NZ$209/두	4주 전 209, 1년 전 179	interest.co.nz
뉴질랜드	양 스케줄 17.5kg YX 남섬 (10/12)	NZ$206/두	4주 전 205, 1년 전 176	interest.co.nz
호주	와가 20~24kg / 24~26kg 무역용 양 평균 (10/15)	1,192 / 1,189 A¢/kg cwt	두당 +5~7달러	Agora(와가)
호주	와가 30kg 이상 대형 양 평균 (10/15)	1,082 A¢/kg cwt	소폭 강세, 두당 A$345~405	Agora(와가)
호주	호샵 중량·대형 무역용 양 평균 (10/14)	1,185 / 1,180 A¢/kg cwt	두당 +5~20달러	Agora(호샵)
호주	호샵 수출 등급 양 평균 (10/14)	1,150 A¢/kg cwt	두당 A$318~347	Agora(호샵)
호주	야스 24~26kg 무역용 양 (10/14)	1,120~1,150 A¢/kg cwt	두당 +6달러	Agora(SELX 야스)
호주	야스 가공용 머튼 (10/14)	800~900 A¢/kg cwt	두당 +8~10달러	Agora(SELX 야스)
호주	벤디고 무역·중량 양 (10/12)	1,100~1,180 A¢/kg cwt	전체 평균 두당 A$267(+5)	Agora(벤디고)
호주	JBS 남호주 신규 시즌 양 구매가 (서호주산)	A$11.20/kg HSCW	-	Agora Marketplace
중국	양고기 도매 평균 (10/26)	67.06 CNY/kg	전주 금요일 대비 -1.0%	농업농촌부
중국	양고기 도매 주간 평균 (10/9~15)	67.11 CNY/kg	전주 -1.0%, 전년 +8.1%	Foodmate(농업농촌부 주간)
뉴질랜드	대미 양고기 관세 (현행)	13.2%	인상 여부 ITC 심사 중	Farmers Weekly NZ
뉴질랜드	Westpac 양고기 가격지수 (10/7)	686	12월 681 전망	Westpac Agri Bites

국가별 가격 변화 그래프



자료: ABARES, MLA 주간 시황, MLA 주간 시황(10/9), interest.co.nz

국가별 주요 뉴스

호주

1. Agora 10/26 시황: 매수 경쟁이 나아지고 마무리가 잘된 중량 양 수요와 좋은 계절 여건 덕분에 NSW·빅토리아 양 시장은 대체로 보합~강세였습니다. Agora
2. 호주 양 사육 마릿수가 100년 만의 최저로 줄어 슈퍼마켓 양고기 값이 평소보다 20~35% 높습니다(갈비 kg당 A$45~53). 2026년 양 도축은 전년보다 10% 넘게 줄 전망이며, 미국·중국 수출 수요도 강합니다. 아시아투데이
3. MLA에 따르면 10/23 주간 양·양고기 지표는 엇갈렸지만 대체로 견조했습니다. 중량 양 지표는 1,128¢/kg(+0.8%, 31,448두), 재입식 양은 1,189¢(-0.5%)이고, 성양 출하가 8.6% 늘었습니다. MLA 주간 시황
4. Mecardo는 양 출하가 늘었는데도 중량 양 가격이 버티고 있으며, 좋은 계절 여건과 높은 수익으로 암양 가격이 산지별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고 전했습니다. Mecardo
5. 10/22 와가는 품질이 떨어져 대부분 등급이 내렸지만 중량 양 경쟁은 강했고, 그리피스는 출하가 10,750두(-2,200)로 줄었는데도 신규 시즌 양이 약했습니다. 털을 깎은 중량 양 공급이 늘고 있습니다. Agora, Agora Updates
6. 가공업체 43주차 구매 그리드는 탐워스 양 A$10.30~11.00/kg, 로베탈 신규 시즌 양 10.50~10.80달러, 스타웰 10.70~11.00달러이고, 머튼은 탐워스 8.50달러, 로베탈 8.00~8.40달러입니다. Agora Marketplace
7. Agora에 따르면 10/20 양 시장은 NSW·남호주·태즈메이니아·서호주에서 수요가 강해 대체로 올랐고, 10/21에도 퀸즐랜드·NSW·빅토리아에서 품질 개선과 매수 경쟁으로 램·머튼 가격이 올랐습니다. Agora Livestock
8. 10/20 포브스 경매는 양 출하가 24,800두(-6,350)로 줄었고, 신규 시즌 양은 두당 5~8달러 올랐습니다. 무역용 양은 1,097~1,222¢/kg, 중량 양은 1,068~1,199¢/kg, 수출용 양은 두당 A$320~388였고, 머튼도 다시 강세였습니다. Agora(포브스)
9. Agora Livestock의 10/19 양 시장 요약에 따르면 NSW는 출하가 줄고 매수 경쟁이 강해 램·머튼 가격이 올랐고, 빅토리아 벤디고는 공급 상황이 엇갈렸습니다. Agora Livestock

뉴질랜드

1. 인도·뉴질랜드 FTA가 발효돼 뉴질랜드산 양고기에 붙던 인도의 33% 관세가 없어졌고, 뉴질랜드 적색육 업계는 이를 환영했습니다. 아시아 신규 수요가 뉴질랜드산 양고기 오퍼를 받칠 수 있습니다. Rural News Group
2. 뉴질랜드 양 도체가는 최고 NZ$12.20/kg, 소는 NZ$10/kg 안팎으로 강세이며, 목초 생육이 좋아지며 농가 심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NZ Herald
3. 미국 양고기위원회(American Lamb Board)는 수입 양고기 점유율이 커지자 품질·효율 개선 연구에 체크오프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뉴질랜드·호주산과의 경쟁을 의식한 조치입니다. RFD-TV
4. ITC 공청회에서 미국 농가·가공업체들이 잇따라 나와 뉴질랜드산 수입이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Farmers Weekly NZ
5. 호주·뉴질랜드 대사는 ITC에 양국산 양고기 수입이 미국 시장을 키우고 미국 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Inside U.S. Trade
6. B+LNZ의 케이트 애클랜드 의장이 미국의 수입 양고기 공청회에 나가, 뉴질랜드산 양고기 수입이 미국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NZ Herald
7. 호주·뉴질랜드산 양고기 수입 규제를 지지하는 서한에 미국 하원의원 68명이 서명했습니다. 작년 조사 요청 서한보다 2배 넘게 많습니다. Greenstone Meats는 워싱턴 로비 업체를 고용했습니다. (Farmers Weekly NZ)
8. 뉴질랜드육류산업협회(MIA)는 워싱턴 ITC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 경제학자를 고용하는 등 관세 인상 반대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Farmers Weekly NZ)
9. ITC가 피해를 인정하면 12월 1일까지 구제조치 공청회를 열고, 대통령은 권고를 받은 뒤 60일 안에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Farmers Weekly NZ)

참고: 경쟁 공급국

1. 우루과이의 1~9월 양고기 수출은 약 650만 kg으로 18% 줄었습니다(우루과이 양모청). (World Beef Report)

한국 수입업체 관점 시사점

- 호주 가공업체 구매 그리드가 양 kg당 A$10.30~11.00, 머튼 8.00~8.50달러에 형성돼 있어, 한국향 양고기·머튼 오퍼도 이 원가를 밑돌기는 어렵습니다. 털 깎은 중량 양 공급이 늘어나는 11월에 가격 조정이 있는지 지켜볼 만합니다. (Agora Marketplace)
- 미국 업계가 최대 8년의 세이프가드를 요구하고 있어, 관세나 쿼터가 확정되면 호주·뉴질랜드산 물량이 아시아로 돌며 한국향 오퍼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미국 생산자 다수(49곳 중 31곳)가 수입 피해가 없다고 답한 점은 호주·뉴질랜드에 유리한 근거입니다. 그래도 미국의 관세 인상 판정(11/13 전후)이 4분기 최대 변수이고, 미국 의회의 압박까지 커져 규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관세가 오르면 호주·뉴질랜드산 대미 물량이 아시아로 돌아 한국향 오퍼가 내려갈 수 있으므로, 대량 계약은 판정 뒤로 미루고 당장 필요한 물량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호주산: 신규 시즌 양 출하가 늘기 시작했지만 가공업체 경쟁이 강해 동부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NSW 등 동부는 강세이지만 서호주는 출하가 많아 약세여서, 서호주산 물량 위주로 가격을 협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국 양고기 도매가는 주간 평균이 전년보다 8% 높아, 중국 수요 회복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 뉴질랜드산: 스케줄이 전년 대비 17% 높고 수출가격도 최고 수준이라, 관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강세 오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 줄 요약

호주 중량 양 지표가 1,128¢로 오르고 가공업체 그리드도 kg당 A$10~11에 머물며 뉴질랜드 도체가도 높아 산지발 원가 부담이 크므로, 미국 세이프가드 판정(11/13) 전후의 물량 변화를 보며 필요한 물량만 나눠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